

경기당 슈팅수 18개... 날선 창외 포르투갈

오늘 U-20 월드컵 포르투갈과 16강전

오늘 오후 8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한국과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을 치를 포르투갈은 무척 공격적인 팀이다.

C조 조별리그를 1승1무1패(승점 4)로 통과한 포르투갈은 3경기에서 본선 진출국 24개팀 중 4위에 해당하는 53개의 슈팅을 시도했다.

경기당 18개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다. 1-1로 비긴 코스타리카전에서는 8개 시도에 그쳤지만 잠비아전(1-2 패배)에서는 21개, 이란전(2-1 승리)에서는 24개의 슈팅을 기록했다.

물론 많은 슈팅수가 좋은 성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65개의 슈팅을 날리고도 1승1패로 예선 탈락의 수모를 당했다. 포르투갈의 득점도 4골로 많지 않다. 포르투갈이 시도한 53개의 슈팅 중 유효슈팅은 15개에 불과하다.

총 28개의 슈팅 시도 중 11개를 골대 안으로 보낸 한국과 유효슈팅 만큼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슈팅수가 많다는 점은 상대팀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축구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골로 향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슈팅이다.

정확도를 떠나 결과를 만들려는 시도만으로도 상대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포르투갈 공격진의 경계대상 1호는 디오고 곤살베스(벤피카)다.

자국 최고의 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등번호 7번의 곤살베스는 포르투갈 명문인 벤피카 소속으로 뛰고 있다.

주로 왼쪽 측면에 서는 곤살베스는 수준급의 오른발과 각도에 구에 받지 않는 과감한 슈팅이 장점인 선수다.

조별리그에서는 두 골을 뽑았다.

한국은 이번 대회 직전까지 치른 평가전에서 거의 매 경기 실점을 거듭하며 수비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전에 몰입해서는 기니(3-0 승리), 아르헨티나(2-1 승리), 잉글랜드(0-1 패배)를 상대로 한층 안정적인 조직력을 뽐내며 2실점으로 막았다.

차분히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기니전에서 사용했던 포백 혹은 아르헨티나전에서 재미를 봤던 스리백 중 하나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

이상민(19·송실대)과 정태욱(20·아주대)이 중심을 잡는 가운데 스리백으로 나설 경우 김승우(19·연세대)가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기자



지난 23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A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대한민국 정태욱이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전북 선수단, 전국소년체전 메달 획득 순항 중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갖고 닦은 기량을 펼쳐 연일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29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충남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년체전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고른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전북 선수단은 총 40개(금 7개·은 12개·동 21개)의 메달을 획득한 상태다.

육상(포환던지기)의 최하늘과 자전거 임하람 유도 육원 중 육상 안성우는 금빛 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역도 종목에 출전한 최지호는 인상과 용상·합계 등 모두 싹쓸이하며 3개의 금메달을 얻었다.

이외 양궁과 근대3종, 레슬링, 태권도, 체조 등의 종목에서도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다며 '대회가 끝날때까지 아무 사고없이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전북대 정검회, 국무총리기검도대회 우승

전북대학교 검도 동아리 '정검회'가 최근 열린 제1회 국무총리기검도 전국 생활체육 시·도 대회 검도대회에서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대회에서 전북 대표로 출전한 전북대 김유신 학생(경영학과 2년)은 서울과 전남, 경남, 경기 선수를 연이어 제치고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대학검도연맹이 주최한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김유신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 점도 상대에게 허락하지 않는 노련함을 보이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와 함께 원광대와 연합으로 팀을 구성한 전북대는 경기도와 경남 대표팀을 제치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북대 단체인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단체 준우승에 올랐다.

임재웅 지도교수는 "정검회는 1983년에 창립된 전통 있는 동아리로 검도의 예를 통해 정신 수양은 물론 학생과의 소통과 화합을 모색하고 있다"며 "학생들 간 화합의 소통을 통한 합동 연습을 통해 대회마다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 우리대학의 자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슈틸리케 감독 "이승우·백승호 A대표팀 합류 '시기상조'"



"청소년 대표팀서 뛰는 선수가 A대표팀 합류하는 건 결코 쉬운일 아니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U-20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바르셀로나 듀오' 이승우와 백승호의 A대표팀 승선 여부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29일 경기 과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갖고 "이승우와 백승호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월드컵 전, 전북 현대와 평가전에서 드러났듯이 청소년과 성인 대표팀의 격차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 조별 예선 3경기만 놓고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청소년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가 A대표팀에 합류하는 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6월1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8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현재 한국은 7경기서 4승 무패(승점 13)로 이란(승점 17)에 이어 조 2위에 올라있고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2)의 추격을 받고 있다.

그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공식 소집기간은 아니지만 합류가 가능한 선수들을 조기 소집했다"며 "현재 필드플레이어만 11명이다. 이들과 함께 공격이나 수비와 관련한 전술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컨디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무엇보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손흥민은 힘든 상황이고 소속팀에서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 이

창용의 경우 훈련을 더 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주 NFC에 모인 선수는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한국영(알 가라파), 조현우(대구), 권태휘(서울), 김창수(울산), 최철순, 김진수, 이재성(이상 전북), 이근호(강원) 등 총 12명이다.

특히 한국은 중동원정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무더운 날씨와 흙 밧세를 극복해야 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카타르는 끝까지 홈에서 상대 팀을 괴롭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카타르가 본선 진출 가망은 없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임실군수배 배드민턴 대회 성료

'제16회 임실군수배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27일 군민회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임실군배드민턴협회(협회장 한정영)가 주최하고 임실군과 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와 전주시에서 100개팀 약 200여명의 동호인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한 심민 군수, 이용호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동호인을 격려하고 건승을 기원했다.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했다.

장년부와 장년부 남·여 복식으로 나눠 치러진 경기에서 총 16개 우승 팀이 가려졌다.

심민 군수는 대회를 통해 "승패를 떠나 서로 친목을 다지고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